# 18 엄마가 들려주시던 내 고향 속담(2)

## ♠학을 떼다

낫살이나 먹은 사람 치고 이 관용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쓰는 관용구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학을 떼다, 학을 띠다, 학질을 떼다 등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관용구로 올라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되고 모기와 같은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방역을 하지만 전에는 그러지 못해서 각종 질병들에 많이 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질(=학)입니다. 요즘은 학질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말라리아(Malaria)란 말을 널리 쓰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모기에게 물려 이 병에 걸리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설사와 구토·발작을 일으키고 비장이 부으면서 빈혈 증상을 보입니다. 길게는 두 달, 석 달까지도 고생을 하는데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학질에 걸리면 생명을 위협받기까지 하는 큰 고생들을 하였는데 여기서 유래한 말이 '학을 떼다.' 입니다. 학을 뗐다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고생을 하였거나 큰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느라고 거의 질려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용례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석, 얼마나 질이 나뿐지 동네 사람들이 그 저석 이름만 들미이도(들먹여도) 학을 뗀다.'

'우리 친구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돈 빌리면 돈 안 갚고 거짓말 잘 하고, 약속 잘 안 지키고 친구들마다 학 안 떼는 사람이 없다.'

'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학을 뗐는고 아나?'



## 1 '엄마가 들려주시던 내 고향 속담 2' 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학을떼다' 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속담을 조사해 봅시다.

## 2 '학을 떼다' 란 속담을 넣어 간단한 글을 지어 봅시다.

## 3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방언을 조사해 봅시다.